

일본서 문화도시광주전 '서로 엮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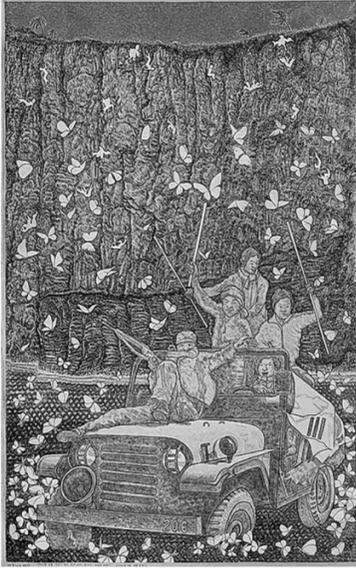
23일까지 오키나와 '사키미술관' 광주·전남 8명·오키나와 6명 참여 역사와 평화 주제로 작품 선보여 전쟁·식민지배 격동의 역사 겪어 "비슷한 역사·아픔 지역연대 계속"

광주시립미술관은 2012년 이래로 매년 개최한 문화도시광주전을 올해는 일본 오키나와 소재 사키미술관에서 오는 23일까지 개최한다.

문화도시광주전은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국제무대에 소개하고 해외기관 및 해외작가들과 교류하기 위한 전시다. 이번 '서로 엮은 이야기 Interwoven Narratives'전은 광주·전남 작가 8명과 오키나와 작가 6명이 함께 역사와 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김화순, 노은영, 박성완, 이상호, 이세현, 이준석, 하성흡, 홍성담과 킨조 미노루, 타이라 코우시치, 요나하 타이치, 이시카기 카츠키, HAYATO MACHIDA, 나카마 노부에 작가로 총 14명이다. 이들은 역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 있던 한



홍성담 작 '마부니의 바람'

반도는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된 후에도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 민족분단과 전쟁, 군사정권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 등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특히 광주에서는 1980년 5월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국가가 자국민에게 저지르는 폭력의 한 사례인 5·18 민주화운동은 현재까지도 첫 발표명령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사상



하성흡 작 '1980.5.21 발포'

자 수 역시 집계되지 않고 있다. 1429년 건설된 류큐왕국은 17세기에 일본의 막번체계에 종속됐으며, 1879년 메이지정부의 폐번치현 정책에 따라 오키나와현이 됐다. 일본에 편입된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상륙해 평양전선 최대의 혈전 장소가 된다. 이전 투에서는 미군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의한 자국민의 피해가 상당했는데, 일본은 자살특공대에 민간인을 동원하거나 집단자

살령을 내려 무고한 주민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전투가 종료된 후에는 1972년까지 미국이 오키나와를 점령했으며, 일본에 반환된 현재까지도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각종 사회정치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국에 의한 지배와 국가폭력의 경험이 서로 엮인 두 도시의 예술가들을 3지점에서 서로 엮었다. 첫 번째 지점은 '장소'로 약 1000km 떨어진

두 도시의 작가들이 공통의 의제를 위해 사키미술관에 모였다. 두 번째 지점은 '세대'로 국가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이 함께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전승하고자 한다. 마지막 지점은 '매체'로 판화, 회화, 한국화 등 다양한 매체의 어우러짐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가 진행되는 사키미술관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중 하나인 후텐마 비행장에 인접한 곳으로 비행장이 조성된 땅의 일부는 원래 사키마 미치오 관장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관장은 오랜 협상 끝에 일부를 반환받아 미술관을 설립했으며, 군용지대로 받은 돈으로 '삶과 죽음', '고뇌와 구제', '인간과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광주와 오키나와는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일제 폐망 이후에는 미군의 주둔, 다양한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등 비슷한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전시에서 직접 겪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이후 세대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도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서로 엮은 이야기' 광주와 오키나와 작가 14명의 교류로 탄생한 전시인 만큼 두 지역의 연대가 앞으로도 이어질 바란다"고 전했다.



니콜라 부리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전문기획자 양성과정'에서 강연하고 있는 모습.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광주비엔날레 전문기획자 양성과정 '뜨거운 열기'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 등 강연 전시 관람·워크숍 등 실무 교육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전문기획자 양성과정'이 지난달 29일 12개국 전시기획 분야 활동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주간 일정이 시작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오는 7일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인 니콜라 부리오는 특별 강연을 통해 전시를 완성해가는 극적인 순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 주제인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관통하는 '판(공간)'과 '소리'의 내러티브를 통해 지형학적 관점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과정, 그리고 동시대 미술이 품어야 할 예술적 응답에 대해 강조했다.

참가자 중 광주 출신의 김희주 씨는 "전문기획자 양성 코스에 참여한 동료들을 보니 미술이라는 점점 아래 다른 나라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 같다"며 "이

문서로 접한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의 강연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2주간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술계 연사의 강연과 함께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개막과 맞물려 심층적인 큐레이팅과 다학제적인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전문 기획자 양성 코스 참가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 이숙경 휘트워스 미술관 관장, 마시말리아노 지오니 뉴뮤지엄 디렉터, 노암 시걸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LG전자 여소시에이트 큐레이터 등 세계적인 강사진의 강연은 물론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개막 일주일 전부터 개막 후 일주일까지 개막식과 전시 관람, 워크숍과 심포지엄 등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쌓는다.

미술계에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세계 기획자들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전문기획자 양성과정은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광주대 재학 '두부두부' 작가 웹소설 인기

'야생에서 갤러리를 얻었다' 네이버 연재 조회 수 100만

광주대학교는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두부두부(필명·3학년)' 작가의 신작 '야생에서 갤러리를 얻었다(사진)'가 '네이버 시리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연재 두 달 만에 조회 수 100만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 판타지 신작 부문 10위권 안팎의 순위를 기록 중이다.

두부두부는 이미 웹소설 플랫폼 '노벨피아'에서 두 편의 소설을 완결시킨 인기

작가다. 신작 '야생에서 갤러리를 얻었다'는 네이버로 이적 후 발표한 첫 작품이다.

다수 독자들은 "노벨피아 이용자들이 공유되었던 서브컬처 취향과 마이너한 코드의 매력이 네이버라는 메이저 플랫폼에 소개된 계기가 된 작품"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부두부 작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 예상 못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다"면서 "광주대 문예창작과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인스타툰 인기작가 '공씨' 광주서 작품전

29일까지 ACC 도서관 이벤트홀 아시아 문학페스티벌 북토크

독서의 달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컷문학, 공씨의 글림일기' 전시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29일까지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인스타툰 인기 작가이자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의 저자 공씨의 작품전을 개최한다.

인스타툰은 10컷에 제한된 글과 그림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또 하나의 문학이다.

소셜미디어의 강점을 살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는 작가 공씨의 인스타툰 '평범해서 특별한, 공씨의 글림일기' 작품을 모아 펴낸 책이다. 콘텐츠를 만들 때 글과 그림이 균형 있게 조화되기를 바라며 '글+그림일기=글림일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작가는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며 각자의 이야기가 돼 사람들에게 공감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를 중심으로 용기와 위로, 가족의 사랑에

대한 작품과 'ACC를 방문한 공씨'의 새 작품으로 구성해 살아가는 모두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이외에도 ACC는 '제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오는 27~29일)' 기간 동안 도서관 북토크를 마련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이자 배우인 차인표 작가가 오는 28일 ACC를 찾아 강연을 펼치며, 이어 다음날에는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의 저자 공씨 작가의 북토크가 이어진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9월은 '독서의 달'이면서 ACC의 '제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달"이라며 "ACC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를 확산하고, 도서관이 독서문화를 즐기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